

17세기 후반 위그노 망명과 영국의 명예혁명*

김 충 현

1. 머리말
2. 위그노 망명과 영국인의 반가톨릭 정서
3. 위그노 망명 군인과 윌리엄 3세의 아일랜드 원정
4. 맺음말

국문초록

해외로 망명한 위그노들은 망명지로 가서 경제적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 즉 영국의 명예혁명에도 기여했다. 위그노 망명자들이 전해주는 증언들은 가톨릭 군주에 의한 박해의 고통을 증명함으로써, 제임스의 친가톨릭 정책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감을 강화시켰다. 또한 위그노 망명자들은 윌리엄 오렌지 공의 군대에 입대하여 제임스의 퇴위 및 제임스의 복위운동 저지에 기여했다. 또한 망명자들은 대불동맹의 출현에 기여했는데,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루이 14세를 견제하기 위해 윌리엄의 영국 상륙을 지원했다. 이렇듯 위그노 망명자들은 고향을 떠나 수난을 당했지만, 17세기 후반 유럽의 다양한 분야에서 조용히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385).

I. 머리말

1685년 10월 루이 14세가 퐁텐블로칙령으로 낭트칙령을 폐지하면서, 위그노들은 신앙과 국가, 양심과 왕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퐁텐블로 칙령의 발표는 박해의 시작이 아니라 앙리 4세 사후 지속되어온 박해의 종착점으로서, 마침내 루이 14세가 위그노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종교적 통일성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프랑스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역으로 프랑스를 약화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퐁텐블로 칙령에 대한 위그노들의 반응은 동일하지 않았다. 일단 박해를 피하기 위해 즉시 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위장 개종 이후 집에서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개신교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또한 가톨릭 국가에서 사는 것보다 망명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망명지로 가장 선호되었던 네덜란드로 55,000명~70,000명이 망명을 떠난 것을 비롯하여 총 200,000명, 즉 위그노 인구의 1/5, 프랑스 전체 인구 중 1%가 망명을 떠났다.¹⁾

그러나 위그노들의 망명은 퐁텐블로 칙령에 의해 금지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재산이나 기타 소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망명은 매우 위험했고, 망명한 위그노들의 처지는 매우 가난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그노들의 망명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루이 14세를 잔인한 박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유럽에서 개신교 동맹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동시대인들 및 이후 역사가들은, 위그노들이 주로 경제부분에서 활약했던 만큼, 망명이 프랑스에는 경제적 타격을, 반대로 위그노들을 받

1) Samuel Mours, "Essai d'évaluation de la population protestante réformée aux XVII^e et XVIII^e siècles", *BSHPP*, vol. 104(1958), pp. 10-20.

아들인 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평가해 왔다.²⁾

그러나 위그노 망명의 경제적 영향이 너무 강조되다보니 그동안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고, 특히 정치적 영향에 대해선 더욱 그러했다. 위그노들은 교계제도를 거부하는 개신교 원리에 따라 공화주의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러한 특징이 위그노 망명 이후 발생한 정치적 혁명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따라서 본 필자는 위그노 망명자들이 유럽의 정치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위그노 망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글은 그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면서, 위그노 망명과 명예혁명이 어떤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영국 상륙 및 아일랜드 원정 과정에서 윌리엄 3세의 군대에서 활약했던 위그노 망명 군인들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위그노 망명이 17세기 영국 정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2. 위그노 망명과 영국인의 반가톨릭 정서

영국은 네덜란드와 브란덴부르크와 함께 위그노들이 선호했던 망명지였다. 영국으로 망명한 위그노의 수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많게는 120,000명에서 적게는 50,000명까지 다양한 의견

2) Pierre Jurieu(*Réflexions sur la cruelle persécution*, 1687), Michel le Vassor(*Les Soupirs de la France esclave*, 1689)와 같은 위그노 저술가들이 위그노 박해가 프랑스 경제에 미친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한 이후, 역사가들이 그 주장을 재생산하면서 위그노 망명의 경제적 영향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M. Charles Weiss, *History of the French Protestant refugees from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to our own days*, 2 vols., Henry William Herbert (trans.)(New York: Stringer and Townsend, 1854); Samuel Smiles, *The Huguenots: Their Settlements, Churches, & Industries in England and Ireland*(London: John Murray, 1867); Pierre Goubert, *Louis XIV and Twenty Million Frenchmen*(New York: Vintage Books, 1996); Warren C. Scoville, *The persecution of Huguenots and French economic development, 1680-1720*(Whitefish: Kessinger Publishing, 2007)

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마련해준 구호품을 전달받았던 위그노 망명자 명단 및 영국 내 위그노 교회들의 세례등록부 등의 자료를 통해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위그노 영국망명자 숫자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40,000명~50,000명이다.³⁾ 위그노 망명자들은 주로 런던이나 그 근교에 정착하고 최소 35개의 교회를 설립했으며, 지방에서는 캔터베리와 사우샘프턴, 플리머스와 같이 주로 해안가 주변에 정착했다.⁴⁾

영국으로 이주한 위그노들이 문제없이 영국에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위그노들은 주로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런던 동부에서 직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고용에 있어서 그들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위그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⁵⁾ 또한 국교회 고위 성직자들은 위그노들의 종교적 성향이 영국 내 비국교도들의 자극하여, 영국의 종교적 통일성에 해를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예를 들어 런던 주교였던 헨리 콤톤(Henry Compton)의 경우, 위그노들이 국교회에 순응하든 안하든, 적극적으로 그들을 후원한 반면, 윈체스터의 주교인 조지 몰리(George Morley)나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샌크로프트(William Sancroft)의 경우, ‘장로교 교리’를 지지하는 위그노들과 영국 내 장로파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⁶⁾

그러면 왜 위그노들은 영국을 주요 망명지로 선택한 것일까? 아마

3) Robin Gwynn, “The number of Huguenot immigrants in England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9, No. 4(1983), Smiles(1867)은 120,000명 이상, Schickler(1882)는 100,000명, Reaman(1963), Poole(1880), Cunnigham(1897)은 80,000명, Weiss(1853)는 70,000명, Zoff(1943)는 60,000명, Baird(1895)는 50,000명, Mours(1958), Léonard(1961), Scoville(1960)은 40,000-50,000명.

4) Samuel Smiles, *The Huguenots: Their Settlements, Churches, & Industries in England and Ireland*, pp. 344-350.

5) Robin Gwynn, *Huguenot Heritage: The History and Contribution of the Huguenots in Britain*(second revised edition)(Eastbourne: Sussex Academic Press, 2001), p. 5

6) Nishikwa, Sugiko, “English Attitudes toward Continental Protestan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hurch Briefs c.1680-1740”, dissertation of Ph. D, University of London(1998), pp. 24-29.

도 그것은 영국 왕들이 100년 넘게 군대지원이나 협상을 통해 위그노들을 도와주어서 영국이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전쟁에서 앙리 4세가 가톨릭 동맹 및 스페인과 싸울 때 3천여 명의 군인을 보내주었고, 찰스 1세는 라 로셀이 포위되었을 때 지원군을 보내기도 했었다. 특히 1670년대 말 8,000명~10,000명 정도의 위그노 망명자들이 영국에 와 있었고,⁷⁾ 전체 망명자가 40,000~50,000명 정도인 것으로 보아, 1680년대 엄청난 망명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박해의 강도가 세졌을 때, 후기 스튜어트 왕조의 왕들이 위그노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찰스 2세의 경우, 1681년 프랑스에서 처음 용기병이 등장했을 때, 햄프턴 코트에서 한 교서(brief)를 발표하여 위그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귀화허가서(Letters of Naturalization)를 통해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상업과 무역활동에서 필요한 특권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영국인들과 동일한 면세 혜택, 이동의 자유 및 비관세 물품 이동을 보장했다. 특히 가난한 위그노들을 돕기 위한 영국인들의 모금을 권장하기도 했다.⁸⁾ 가톨릭교도였지만 제임스 2세도, ‘박해를 반 기독교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1686년 3월 5일 찰스 2세가 위그노에게 부여했던 특권들을 재천명했다. 그래서 위그노 망명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모금 및 귀화허가서와 관련된 특권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다. 물론 1686년 제임스 2세의 교서는 찰스 2세와 달리 프랑스에서의 엄청난 박해와 위그노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교서를 통해 제공된 특권들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는 점이 달라져 있었다.⁹⁾

7) Robin D. Gwynn, "The Distribution of Huguenot Refugees in England", *Proceedings of the Huguenot Society of London*, XXI(1965-1970), pp. 432-433.

8) M. Charles Weiss, *History of the French protestant refugees, from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to our own days*, p. 246.

9) Robin Gwynn, *Huguenot Heritage*, p. 170.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였지만, 루이 14세의 잔인한 박해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점이나 특권에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위그노들로 하여금 제임스 2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루이 14세와 친했고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제임스 2세의 다른 모순된 행동들로 인해 증폭되었다. 위그노들은 제임스 2세가 여론에 밀려 자신들을 환대했고 사실 개신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찰스 2세의 교서가 용기병 박해 직후 발표된 반면 제임스 2세의 교서는 1685년 10월 낭트척령이 폐지된 직후가 아닌 1686년 3월에서야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밀원에서 교서가 처리된 것은 1685년 11월 5일이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 발표된 것이 의심을 부추겼다.

또한 제임스 2세는 1686년 교서에서 ‘영국 정부에 완전히 순응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것은 국교회 예배의식을 수용한 개신교회 및 국교회 예배의식에 따라 성찬식을 받은 사람에게만 구호자금을 지급하는 하려는 것으로서¹⁰⁾ 위그노들의 반감을 샀다. 왜냐하면 국교회에 대한 순응 다음에는 가톨릭에 대한 순응이 요구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장 뒤렐(Jean Durel)과 같은 위그노 목사들과 일부 위그노들은 이러한 정책에 순응했다. 왜냐하면 영국만한 피난처가 없었으며, 국교회에 순응하여 영국인들과 공존하는 것이 미래에 있을 가톨릭의 재수립에 대비할 좋은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¹¹⁾ 그러나 뒤렐과 달리, 대다수 위그노들은 개신교 예배의식과 계율을 지키고자 망명한 만큼 이러한 조치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풍텐 목사(Jacques Fontaine)의 경우 국교회 방식의 성찬식에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

10) *Ibid.*, p. 171.

11) Susanne Lachenicht, “Differing Perceptions of the Refuge?: Huguenots in Ireland and Great Britain and their Attitudes towards the Governments’ Religious Policy (1660-1710)”, Anne Dunan-Page (ed.),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Huguenots, 1660-1710*(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6), p. 48.

으로 주어지는 연금수령을 거부했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뒤렐 후임으로 사보이 교회의 목사로 부임한 아바디(Jacques Abbadie)의 경우, 윌리엄 3세를 찬양하고 제임스를 공격하면서, 그를 ‘폭군’(puissance tyrannique), ‘악명 높은 국가파괴자’(destructeur notoire de l'État), ‘공공의 적’(ennemi publique)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위그노들이 가진 제임스에 대한 불안과 불만 및 윌리엄 3세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감정을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¹²⁾

다른 한편으로 영국인들도 제임스 2세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영국인들은 망명자들을 위해 1687년에만 총 42,000파운드의 지원금을 모금했을 정도로 위그노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제임스의 모순된 행동이 영국 내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대사 바리옹(Barrillon)과 망명자들의 프랑스 귀환을 책임 맡은 봉르포(Bonrepaus)의 영향이라고 의심하면서,¹³⁾ 제임스 2세가 결국 루이 14세와 같은 박해자로 변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위그노들이 전하는 박해의 가혹함, 망명의 처참함 및 망명자의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공포심으로 바뀐 것 같았다. 제임스 2세가 장 클로드(Jean Claude)의 책을 불태운 사건은 위그노에 대한 박해의 스토리가 영국인들에 미친 영향을 짐작케 한다.

위그노 목사였고 네덜란드로 망명했던 클로드는 1686년 루이 14세의 종교정책을 비난하는 책,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압제의 이야기』(*Account of the Persecutions and Oppressions of the Protestants in France*)¹⁴⁾을 출판했다. 출판 즉시 영어로 번역된

12) Jacques Abbadie, *Défense de la nation Britannique ou les droits de Dieu, de la Nature & de la Societé clairement établis au sujet de la revolution d'Angleterre, contre l'auteur de l'Avis important Réfugié*(London, 1692); *Ibid.*, p. 49에서 재인용.

13) E. S. de Beer (ed.), *The Diary of John Evelyn*, vol. IV(Oxford: Clarendon Press 1955), p. 506.

14) Robin D. Gwynn, "James II in the Light of His Treatment of Huguenot Refugees in England, 1685-1686",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92, no. 365(Oct.

클로드의 책은 영국에서 계속해서 재발행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제임스 2세는 추밀원과 대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런던 거래소(London Exchange) 앞에서 불태워버리고 그 번역자를 체포해 버렸던 것이다.

사실 영국인들은 헨리 8세의 종교개혁, 메리 1세의 가톨릭 재확립, 그리고 다시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으로 이어지는 종교정책 속에서 왕들의 종교변화로 고통을 겪은 바 있고, 특히 ‘피의 메리’로 불리는 메리 1세의 개신교 박해로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이 트라우마는 영국 외부에서 왔던 충격들, 즉 1572년 성 바르텔르미 대학살, 1588년 펠리페 2세의 영국 공격, 1641년~1649년 아일랜드의 개신교 대학살, 1650년대 피에몽의 발도파 학살 등에 의해 강화되면서, 17세기 영국인들에게 가톨릭은 폭력, 잔인함, 학살 및 절대주의와 결탁한 독재로 각인되었고, 따라서 반가톨릭 정서는 후기 스튜어트 왕조에서 정서적, 정치적으로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어 있었다.¹⁵⁾

특히 이러한 반가톨릭 정서는, 믿었던 찰스 2세가 임종 직전 가톨릭으로 개종하며 가톨릭교도인 제임스 2세가 왕위를 계승했고(1685), 비슷한 시기인 1681년과 1685년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들의 개종을 강요하는 용기병과 개신교 존재를 부정하는 폰텐블로 칙령이 나타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위그노들은 가톨릭 폭군의 산증인이 되어 동시대 영국인들에게 가톨릭과 독재정부의 관련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엄청난 망명 숫자와 가난함은 영국 여론을 공포심으로 자극하기에 충분했다.¹⁶⁾ 이러한 여론을 제임스도 알고 있었던 듯한데, 왜냐하면 프랑스 대사가 루이 14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임스 2세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1977), p. 831.

15) Tim Harris, *Politics under the Later Stuarts: Party conflict in a divided society 1660-1715*(London: Longman, 1993), pp. 54-58.

16) Robin Gwynn, *Huguenot Heritage*, pp. 177-179.

“제임스는 모든 개신교도들을, 특히 프랑스에서 온 개신교도들을, 공화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폭력에 대한 루머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람들이 영국 왕도 같은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룰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으니, 왕은 조금 더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한 소문이 사라지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¹⁷⁾

그러나 제임스 2세의 바람과 달리 영국에 정착한 위그노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뉴스와 루머들이 영국 내에서 빠르게 유포되었다. 그러한 루머들은 루이 14세의 도움으로 프랑스와 영국에서 동시에 개신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이나, 1686년 1월 루이 14세가 제임스 2세에게 50척의 배와 50,000명의 군사를 제공했다는 보고들이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러한 소문은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발랑스(Valence) 주교의 연설에 의해 구체화되면서 영국인들을 자극했는데, 발랑스는 루이 14세에게 제임스 2세와 합류하여 무력으로 영국의 이단을 박멸하도록 촉구하는 연설¹⁸⁾을 했었다. 당시 영국인들은 루이 14세가 대륙에서 거둔 군사적인 성공에서 개신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개신교 국가인 스웨덴이 약화되어 있었고 네덜란드 전쟁(1672-1678)에서 네덜란드 군대의 취약함이 드러난데 반해 제임스는 프랑스 왕의 부하가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문이든 사실이든 루이 14세가 제임스 2세를 도와 영국 개신교를 공격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졌다. 1688년 웨스트 브라운(John Westbrow)의 경고는 이런 영국인들의 두려움을 반영한다.

“프랑스에서 지난 3년 동안 개신교도들에게 행해진 박해는 가톨릭과 관련하여 어떤 선언, 어떤 약속, 혹은 어떤 맹세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충분한 경고가 아닌가!”¹⁹⁾

17) *Ibid.*, p. 92.

18) Jean Orcibal, *Louis XIV et les Protestants*(Paris: Vrin, 1951), p. 105.

19) BL, Add. MS 41,805, f.50; Robin Gwynn, *Huguenot Heritage*, p. 182에서 재인용.

물론 의도적으로 이러한 루머를 양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다. 예컨대, 영국 궁정에서 활동했던 위그노 스파이들은 제임스 2세가 위그노와 같은 상태로 국교회교도들을 줄이려고 루이 14세에게 프랑스 군대를 요청했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네덜란드로 망명한 휘그파 망명자들과 연결하여 예수회와 가톨릭의 잔혹행위가 묘사된 저서들을 영국에 밀반입시키기도 했다.²⁰⁾ 사실 제임스 2세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의 행동은 소문을 사실로 믿게 할 여지가 있었다. 잘 알려진 제임스 2세의 1687년 관용령(Declaration of Indulgence)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고자 했던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 가톨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1686년 비국교도의 공직배제를 규정했던 심사율(Test Act)을 폐지한 것은 가톨릭교도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여 독재를 강화하려는 행위로 인식되었다.²¹⁾ 그리고 1687년 제임스 2세가 근위기병대의 4번째 부대를 창설했을 때, 그곳에 위그노 군인들뿐만 아니라 강력한 휘그파 군인들이 존재했고 단지 10% 미만이 가톨릭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군대를 가톨릭교도들로 채워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고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고 의심했다.²²⁾

1688년 11월 발행된 한 팜플렛은 이러한 영국인들의 의심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 왕은 개신교 백성에 대해 늑대로서의 자신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지금까지 우리의 왕도 교황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는데, 그 계획은 왕이 오랫동안 은밀히 추진해 왔던 것으로서, 가톨릭의 손아귀에 군사력을 맡겨 개신교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²³⁾

20) J. H. M. Salmon, *The French Religious Wars in English Political Thought*(Oxford: Clarendon Press, 1959), pp. 149-152.

21) Matthew Glozier, *The Huguenot Soldiers of William of Orange and the Glorious Revolution of 1688*(Eastbourne: Sussex Academic Press, 2002), p. 89.

22) *Ibid.*, pp. 99-100.

23) Bernard Cottret, *The Huguenots in England immigration and Settlemen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189에서 재인용. *Memorial from the*

뿐만 아니라 외국의 개신교도들에게 보여준 영국인들의 후원금 액수는 영국인들이 얼마만큼 위그노들의 아픔에 동조했는지, 그리고 명예혁명 직전에 영국인들 사이에 개신교 위기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런던에 있는 성로렌스 주리(St Lawrence Jewry) 교회의 경우, 낭트척령이 폐지된 이후인 1686년과 명예혁명 직전인 1688년 외국인 개신교도에 대한 후원금이 각각 384파운드와 300파운드로서 다른 후원금(각각 3파운드와 100파운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향이 성자일스 인 더 필즈(St Giles in the Fields) 교회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Parish Church Contributions Briefs 1680-1704〉²⁴⁾

	St Lawrence Jewry(London)			St Giles in the Fields(London)		
	contributions to briefs for foreign Protestant	annual numbers of other briefs	average contributions to other briefs	contributions to briefs for foreign Protestant	annual numbers of other briefs	average contributions to other briefs
1680		5	5:3:11	-		
1681	4:9:0	3	1:2:5	20:4:3		
	57:4:6					
1682		7	12:5:5		7	7:7:9
1683		10	5:12:9	.	3	4:0:11/s
1684		2	1:12:51/2		2	23:5:1/2
1685		3	2:3:4		6	7:0:9
1686	384:17:1	1	3:16:8	1240:19:0	1	31:10:3
1687				450:0:0		
1688	300:12:0	1	100:0:0	233:18:6	2	14:7:0
1689	225:19:11	2	30:3:111/2	900:0:0	4	64:0:11/2
1690	75:15:6	5	10:9:5	156:14:0	5	15:0:7

English Protestants to their Highnesses the Prince and Princess of Orange, Concerning their Grievances, and the Birth of the Pretended Prince of Wales, in A Collection of State Tracts, vol. I(London, 1705), p. 9.

24) 두 교회에 대한 자료는 다음의 논문에서 제시된 도표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Sugiko Nishikawa, "English Attitudes toward Continental Protestants", p. 43.

이렇듯, 박해받고 비참해진 위그노들의 존재는 제임스의 친가톨릭 정책과 함께 영국인들의 반가톨릭정서를 강화시켰고, 그에 따라 영국의 정치상황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3. 위그노 망명 군인과 윌리엄 3세의 아일랜드 원정

미래에 윌리엄 3세(William III)가 될 네덜란드의 윌리엄 오렌지 공(William of Orange)은, 영국 내 반가톨릭 정서를 익히 알고 있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줄도 알았다. 즉, 그는 1688년 11월 5일 영국에 상륙할 때, 소수이지만 위그노 망명 군인들을 대동했는데, 이는 바로 영국인들의 반가톨릭 정서를 자극하고 자신의 행동을 ‘종교적 행동’, 즉 영국 내 개신교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개신교에 대한 구원캠페인으로 보여 지게하기 위해서였다.

본 장에서는 윌리엄이 영국 상륙 때뿐만 아니라 특히 아일랜드 원정(1689년~1691년) 때 대동했던 위그노 망명 군인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왜냐하면 윌리엄의 영국 상륙이 명예혁명의 시작이었다면, 진정한 명예혁명의 마침표는 아일랜드 원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윌리엄은 영국 상륙 후 런던을 점령하고 의회로부터 왕위계승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프랑스로 망명한 제임스가 계속 영국 왕위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고 영국 내에서는 제임스를 지지하는 자코바이트(Jacobites)²⁵⁾들이 윌리엄을 부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임스는 루이 14세의 지원군을 이끌고 아일랜드로 상륙했다. 따라서 아일랜드에서 제임스와 그 지지자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명예혁명은 전복되고 윌리엄은 퇴위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원정에서의 성공이 명예혁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5) 자코바이트는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제임스 2세와 그의 아들들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1688년~1746년 제임스 2세와 스튜어트 왕가의 복권을 위해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했다. Paul Robert (dir.), *Le Petit Robert*(Paris: Canada S.C.C., 1985), p. 919.

일반적으로 위그노들은 1685년 이후 대량으로 망명하여 네덜란드나 브란덴부르크와 같은 외국의 군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들은 그 이전부터 외국 군대뿐만 아니라 프랑스 군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위그노들은 1540년대와 1550년대 이탈리아 전쟁동안 프랑스 왕군에서 복무하기도 했고 종교 전쟁동안 개신교 종교 권리를 위해 왕들과 싸우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는 네덜란드를 위해, 레판토 해전에서는 스페인을 위해 싸웠고, 네덜란드 전쟁동안에는 5개의 위그노 보병연대가 루이 14세에 대항해 싸우기도 했다. 특히 1678년 네덜란드 전쟁을 끝낸 루이 14세가 박해의 수위를 증가시키자 많은 위그노 군인들이 외국군대로 망명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이때부터 망명한 위그노 장교들이 3,000명가량 되고 그 중 500~600 여명이 브란덴부르크로, 대다수는 네덜란드로 망명했다고 한다.²⁶⁾

물론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군복무를 선택한 용병들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다른 개신교도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혹은 적어도 기독교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항해 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개신교 국가로 생각되는 혹은 개신교 왕들에 의해 통치되는 네덜란드나 브란덴부르크로 망명하였고, 작전수행 직전 칼뱅의 시편을 찬송했던 것이다.²⁷⁾ 위그노 군인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윌리엄은 영국 상륙군을 조직할 때, 위그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자 송베르(Frederick Herman von Schomberg)라는 프랑스 전직 원수(maréchal)를 등용하여 부사령관으로 삼았다.

송베르는 프랑스가 아닌 독일 태생이었으나, 프랑스에 귀화하여 프

26) C. E. Lart, "The Huguenot Regiments", *Proceedings of the Huguenot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vol. 9(1911), p. 500.

27) D. J. B. Trim, "Huguenot Soldiering c.1560-1685: The Origins of a Tradition", Matthew Glozier and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Huguenot Soldiering, 1685-1713*(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7), p. 29.

랑스 원수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1685년 낭트칙령을 폐지했을 때, 루이 14세는 그에게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권유했지만, 그는 개종 대신 망명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4세는 그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특별히 망명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만큼 능력 있는 군인이었다. 그는 포르투갈을 거쳐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에게 갔다가 영국 상륙을 위해 모집된 군대에서 윌리엄의 부사령관으로 발탁되었다. 비록 그가 프랑스 태생은 아니었지만, 낭트칙령 폐지와 함께 프랑스에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망명길에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그노 망명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그노 망명자들을 윌리엄의 군대에 합류시킬 수 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²⁸⁾ 게다가 송베르는 브란덴부르크에 있던 위그노 군인들을 데리고 윌리엄 군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윌리엄의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다.

윌리엄은 1688년 11월 5일 영국 토베이(Torbay)의 드봉(Devon) 해안가에 상륙했다. 윌리엄이 영국에 상륙할 때 대동한 군인의 숫자는 12,000명에서 21,000명 사이로 추산되는데, 당시 헤이그에 머물면서 네덜란드의 위그노 망명자들을 면밀히 관찰했던 프랑스 대사 아보 백작(Comte d'Avaux)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 12,000명의 군인이 윌리엄과 함께 영국에 상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위그노 군인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그 숫자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556명의 보병, 180명의 기병, 60명의 지원병이 있었다고 한다.²⁹⁾ 이렇게 보면 위그노 군인들은 총 796명으로서, 그가 제시한 총 12,000명의 상륙군에서 차지하

28) Matthew Glozier, "Killing in Good Conscience : Marshal Schomberg and the Huguenot Soldiers of the Diaspora", Anne Dunan-Page (ed.),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Huguenots: 1660-1750*(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6), pp. 90-96.

29) Matthew Glozier and David Onnekink, "Huguenot Soldiers in Dutch Service: A good Captain to disperse the royal troops", Matthew Glozier and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Huguenot Soldiering, 1685-1713*, pp. 120-121.

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물론 그가 프랑스 대사이기 때문에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미한 수의 위그노 군인들이 윌리엄의 상륙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 위그노들은 수적으로도 미미했지만, 따로 구분되어 부대를 형성하지 않고 다른 국적의 군인들과 섞여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송베르와 함께 그들의 존재가 윌리엄을 ‘신과 개신교’를 위한 구원자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윌리엄은 자신의 영국 상륙이, 사실은 유럽에서 루이 14세에 대항할 자금 및 군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럽 개신교를 위한 챔피언’(A champion of European Protestantism)임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그는 1688년 10월 10일 영국인들에게 성명서(*Declaration*)를 발표하고 약 6000부를 복사하여 영국 전역에 보급했다.³⁰⁾ 이 선언문에서 윌리엄은 먼저 ‘영국에서 종교, 법, 자유(*religion, laws, and libertie*)가 무시되고 있으며, 백성들은 양심, 자유, 재산(*consciencs, liberties, and properties*)에 있어서 독재정부의 노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국의 오랜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강조한 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개신교, 평화, 명예, 행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와 함께 ‘Protestant religion’을 강조했다.³¹⁾

자유와 개신교를 위해 영국에 상륙하는 만큼, 자유를 박탈당하고 해외를 떠도는 위그노 망명자들만큼 더욱 좋은 군인들은 없었다. 따라서 윌리엄은 송베르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외에, 위그노 장교 88

30) Jonathan I. Israel, “The Dutch role in the Glorious Revolution”, Jonathan I. Israel (ed.), *The Anglo-Dutch moment: Essays on the Glorious Revolution and its world impac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120-122.

31) *Declaration of the Prince of Orange*, <http://www.jacobite.ca/documents/16881010.htm>(검색 일자: 2019. 7. 26).

명을 선발하여 자신의 왕실 용기병대(Blue Dragoons, Red Dragoons) 및 왕실기병대(Life Guards)에 배치했고, 상륙군의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예컨대, 윌리엄의 기병대를 이끌었던 라 포레스트 후작(Marquis de la Forest), 포병대 장군 라 굴롱(Monsieur La Goulon),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병 장교를 지내다가 윌리엄 군대의 공병감(Chief of Engineers)이 된 캉봉(François dy Puy du Cambon) 등이 있었다. 또한 많은 위그노 부관들이(aides-de-camp) 있었는데, 예를 들면 1688년 이전 위그노 망명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샤를(Charles, Comte de L'Estange), 윌리엄의 상륙군에 참여하도록 위그노들을 설득했던 아르질리에 후작(Marquis d'Arzilliers) 및 프랑스 양주의 연대 지휘관이었다가 낭트칙령이 폐지되자 윌리엄 군대에 합류했던 라 멜로니에르(Seigneur de La Melonière) 등이 있었다.³²⁾

1688년 윌리엄의 상륙군에서 위그노들이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면, 위그노 망명 군인들의 활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일랜드 원정일 것이다. 이때 윌리엄은 위그노들로만 이루어진 4개의 연대를 구성했고, 따라서 그들의 활약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89년 3월 루이 14세는, 아일랜드의 가톨릭 군대와 제임스의 복위를 돕기 위해, 제임스와 함께 군인 및 무기와 군수품을 실은 8척의 함대를 아일랜드로 보냈다. 이들은 3월 17일 브레스트 항구를 떠나 4월 3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도착했다. 윌리엄 3세는 제임스가 아일랜드에 있는 상태로는 영국의 왕위도, 네덜란드의 안보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임스와 결전을 벌이기 위해, 영국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개의 위그노 연대(Huguenot regiments)를 조직했다.³³⁾ 위그노 연대의 총 병력(장교와 사병 포함)은 대략 2,800명으로

32) Matthew Glozier, *The Huguenots Soldiers of William of Orange and the Glorious Revolution of 1688*, pp. 105-106.

33) 여기서 위그노 연대라고 명명하는 것은 장교들이 위그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병들의 경우 그들이 위그노인지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위그노라

서 당시 아일랜드 원정군의 1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689년 3월 먼저 9개의 부대로 이루어진 기병연대가 조직되었고, 아일랜드 원정군의 총사령관직을 맡은 송베르가 지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4월 1일 각각 13개의 중대로 이루어진 3개의 위그노 보병연대가 조직되었는데, 각각 라 플로니에르, 뒤 캉봉, 라 카이모트(Pierre Massue de La Caillemotte)가 그 지휘를 맡았다. 또한 이들 연대에는 총 166명의 임관 장교와 많은 보충 장교들(*reformadoes*-장교직을 보유했지만 임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충장교들은 임관 장교들보다 2배 이상 많은 418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위그노 연대 외에도 다른 아일랜드 원정군 내에 위그노 장교들이 배치되었는데, 제임스 군대 측의 자료에 의하면, 1690년~1691년 영국 군대에 있었던 위그노 장교들이 736명이라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대략 전체 장교(8,000명 정도) 중 10% 정도가 위그노였던 것을 알 수 있다.³⁴⁾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프랑스에서 군사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부터 윌리엄에게 충성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윌리엄 3세는 영국인들로 이루어진 군대보다 이들을 훨씬 더 신뢰했다.³⁵⁾

아일랜드 원정이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윌리엄 3세는, 자신은 대륙에 남아 플랑드르 전선에서 루이 14세의 군대를 상대하기로 하고, 총사령관 송베르로 하여금 아일랜드 원정을 책임지도록 했다.

고 주장하고 입대하면 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그노 기병연대에서 아일랜드 가톨릭 군대로의 탈영 정보를 듣고 4명의 군인들을 체포했을 때 그들의 소지품에서 프랑스 대사 아보백작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각되었다. 그 편지에는 400명의 가톨릭 군인들이 같이 탈영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송베르가 위그노 연대 전체에 가톨릭 군인들의 자수를 권유했다. 당시 자수한 군인들이 약 150명 정도였다. John Childs, "Huguenot and Huguenot Regiments in the British Army, 1660-1702", Matthew Glozier and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Huguenot Soldiering, 1685-1713*, pp. 41-43.

34) *Ibid.*, p. 44.

35) *Ibid.*, pp. 37-38.

1689년 8월 위그노 연대를 포함한 영국군이 벨파스트에 상륙했고, 얼스터 개신교도들이 참여하여 거의 20,000명 가까운 병력이 아일랜드 원정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에 대한 지배권만을 확보한 채 원정은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던독(Dundalk)에 진을 쳤다가 날씨와 질병으로 인해 2달 동안 발이 묶인 채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급품과 포병의 부족 및 열악한 의료체계에 따른 결과였지만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병력 손실, 위그노 연대와 영국인 군인들 간의 불화, 그리고 총사령관에 대한 신뢰성 하락 등으로 원정은 담보상태에 빠졌다.³⁶⁾

윌리엄 3세는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1690년 아일랜드로 갔다. 1689년의 실패를 교훈삼아, 그는 식량과 포병, 수송 장비 및 병원시설을 보충했으며, 병력을 보충하여 군인들을 총 37,000명으로 늘렸다. 윌리엄은 더블린을 향해 남쪽으로 행군하다 1690년 7월 1일 보인(Boyne) 강에서 아일랜드인과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제임스의 군대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훗날 보인전투라고 불리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 전투에서 라 카이모트와 캉봉이 이끄는 위그노 연대가 강 상류의 로즈나리(Rosnaree)로 아일랜드 군대 대부분을 유인하여 싸우는 동안 윌리엄의 군대는 하류에 초점을 맞추면서 드라이브리지(Drybridge)에서 강을 건넜다. 윌리엄 군대가 강을 건너자 아일랜드 군대는 후퇴하여 둘리크(Duleek)에서 항전했지만 패배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도시 드로그헤다(Drogheda)가 항복하고, 워터포드(Waterford) 시 역시 협상을 통해 항복했다.

보인전투에서는 위그노 보병연대장 라 카이모트와 총사령관 송베르가 전투도중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라 플로니에르의 연대에서 5명의 장교 및 60명의 군인들이 죽고 8명의 장교가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보인전투는 위그노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승리한 전투로서, 죽어가면서도 ‘전진하라. 동료들이여...’라고 외치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36) Matthew Glozier, *Marshal Schomberg, 1615-1690: The Ablest Soldier of His Age*(Eastbourne: Sussex Academic Press, 2005), pp. 141-144.

위해 애썼던 지휘관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³⁷⁾

보인전투 패배 후 제임스는 다시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군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뭉쳤고, 리머릭(Limerick)에서 항전했다. 윌리엄 3세는 리머릭을 포위했고, 많은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라 카이모트에 이어 연대장이 된 아베즈(Avèze) 후작 벨카스텔(Pierre de Belcastel)이 부상당했고 그 연대의 사상자는 150명이나 되었다. 또한 위그노 기병연대의 파견부대가 전멸했으며, 강봉의 연대는 77명의 장교 중 6명만 생존했다. 결국 윌리엄은 리머릭 함락을 포기하고 네덜란드로 돌아갔고, 위그노 연대만 남아 결전을 벌인 끝에 코크(Cork)와 킨세일(Kinsale)을 함락시켰다.

아일랜드 원정에서 결정적인 전투는 1691년 7월 12일의 어흐림(Aughrim) 전투였다. 이 전투를 이끈 사람은 후비니 후작(Marquis de Ruvigny)인데, 그는 보인전투에서 죽은 라 카이모트의 동생으로서, 이 일로 프랑스에 남기고 온 피카르디와 상파뉴의 가문영토를 몰수당했다. 1685년 프랑스를 떠난 후비니 후작은 젊은 시절 튀렌과 송베르 원수 휘하에서 군복무를 했었고, 루이 14세 궁정에서 위그노들의 대표자로 활동했으며, 망명 중에도 망명자들의 대변자 및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 전투에서 최전선에 배치된 라 블로니에르의 위그노 연대가 윌리엄 군대의 좌익에서 아일랜드 방어군을 무찔렀다면, 우익에서는 후비니 후작이 위그노 기병 소대를 이끌고 어흐림 성 근처 독길을 따라 아일랜드 군대의 심장부를 공격했다. 군대의 심장부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아일랜드 군인들이 도주하면서, 어흐림 전투는 윌리엄 군대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골웨이(Galway)를 함락시키고, 리머릭에 대한 두 번째 포위를 시도했는데, 리머릭도 타협을 통해 항복하면서, 1691년 10월 아일랜드 원정은 윌리엄의 승리로 끝이 났다.³⁸⁾ 후비

37) Harman Murtagh, "Schomberg, Ruvigny and the Huguenots in Ireland: William III's Irish War, 1689-1691", Matthew Glozier and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p. 102.

38) *Ibid.*, pp. 108-109.

니 공작은 어흐림 전투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골웨이 백작(Earl of Galway)이라는 작위를 받고 이후 아일랜드 정부에서 활동했다.

아일랜드 원정 이후에도 위그노 연대는 대륙으로 이동하여 1697년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에서 봉사했지만, 이후 영국 의회의 요구에 따라 소집해제 되었다. 영국의회는 집 없이 고생하는 위그노들에게는 동정적이었지만, 네덜란드 군대와 분간이 어려운 위그노 군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다. 또한 영국 의회는 이전에 윌리엄과 함께 상륙했던 위그노 군인들을 자유와 종교의 수호자로 인식했지만, 전쟁 후에는 그들이 상비군이 되어 윌리엄의 독재에 활용될까봐 두려워했다. 윌리엄은 이런 의회의 두려움과 요구를 받아들여, 연금을 주고 위그노 연대를 해산시켰던 것이다.³⁹⁾

4. 맺음말

지금까지 해외로 망명했던 위그노들이 영국 명예혁명의 정서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었음을 살펴보았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그노들은 영국인들의 반가톨릭 정서를 강화시켰다.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종교적 박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영국인들은 루이 14세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한 위그노들의 비참한 삶과 제임스 2세의 친가톨릭 정책에 직면하여, 가톨릭 군주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영국인들의 정서는 당대인들의 몇몇 저서 속에서 그리고 영국인들이 위그노들에게 보내준 많은 구호자금에서 확인될 수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위그노 망명 군인들은 윌리엄 3세를 지원함으로써 명예혁명에 기여했다. 자신의 영국 상륙에 대해 ‘침략’이 아니라 ‘개신교 구원’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던 윌리엄은 영국 상륙군에 위그노 장교들을 배치하

39) David Onnekink, "Janisaries, and spahees and pretorian band: Perceptions of Huguenot Soldiers in Williamite England", Matthew Glozier and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Huguenot Soldiering, 1685-1713*.

고 그들에게 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영국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었다. 또한 제임스 2세가 자신의 복위를 위해 루이 14세의 지원군과 함께 아일랜드에 상륙했을 때, 위그노 군인들은 독립적인 4개의 연대로 구성되어 제임스를 물리쳐서 명예혁명을 완성시켰다.

위그노 망명자들의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명예혁명에서 제임스 2세를 지원했던 루이 14세에 대항하여, 윌리엄 3세는 가톨릭의 확장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브란덴부르크의 프리드리히 3세를 위시한 유럽 군주들과 대불동맹을 결성하였다. 이른바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의 시작이었다. 위그노 망명자들은 실질적인 전투에서의 활약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망명국가의 위그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선전, 외교 및 정보 등에 있어서 망명지에 도움을 주거나 프랑스 적국의 대사 혹은 스파이가 되어 프랑스를 상대하기도 했다. 또한 전쟁 자금 마련에도 도움을 주었는데, 예를 들어 영국에서 자크 뒤 페이(Jaques du Fay)는 1692년과 1693년 국영증권에 5,000파운드를 투자했고 1694년 영국 은행에 2,800파운드를 출자했다. 전쟁은 양측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종결되었지만, 결국 루이 14세는 전쟁을 끝낸 라이스바이크 조약(Treaty of Rijswijk)에서 ‘윌리엄 3세를 영국 왕으로 인정하고 프랑스로 망명한 제임스 2세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윌리엄 3세의 왕위는 반대자 없이 완전하게 보장되었다.

이렇듯 위그노 망명자들은, 고향을 떠나 수난을 당했지만, 명예혁명을 완성시키고 윌리엄 3세의 왕위를 지켜냄으로써, 17세 후반 유럽의 정치 부분에서도 중요한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었다.

(충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투고일자: 2020. 7. 20 심사일자: 2020. 8. 6, 게재확정일자: 2020. 8. 6〉

▶ **주제어** : 위그노 망명자(Huguenot Refugee),
위그노 연대(Huguenot Regiment), 제임스 2세(James II),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 윌리엄 3세(William III)

참고문헌

1. 1차 문헌

E. S. de Beer (ed.), *The Diary of John Evelyn*, Vol. IV(Oxford: Clarendon Press, 1955).

Declaration of the Prince of Orange, <http://www.jacobite.ca/documents/16881010.htm>.

Memorial from the English Protestants to their Highnesses the Prince and Princess of Orange, Concerning their Grievances, and the Birth of the Pretended Prince of Wales, in *A Collection of State Tracts*, vol. I(London, 1705).

2. 연구문헌

Abbadie, Jacques, *Défense de la nation Britannique ou les droits de Dieu, de la Nature & de la Societé clairement établis au sujet de la revolution d'Angleterre, contre l'auteur de l'Avis important Refugié*(London, 1692).

Childs, John, “Huguenot and Huguenot Regiments in the British Army, 1660-1702”, Matthew Glozier,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Huguenot Soldiering, 1685-1713*(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7).

Cottret, Bernard, *The Huguenots in England immigration and Settl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Glozier, Matthew, *The Huguenot Soldiers of William of Orange and the Glorious Revolution of 1688*(Eastbourne: Sussex Academic Press, 2002).

_____, *Marshal Schomberg, 1615-1690: The Ablest Soldier of His Age* (Eastbourne: Sussex Academic Press, 2005).

_____, “Killing in Good Conscience : Marshal Schomberg and the Huguenot Soldiers of the Diaspora”, Anne Dunan-Page (ed.),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Huguenots: 1660-1750*(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6).

_____, and David Onnekink, “Huguenot Soldiers in Dutch Service: A good

- Captain to disperse the royal troops”, Matthew Glozier,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Huguenot Soldiering, 1685-1713* (Farnham: Ashgate Publishing Press, 2007).
- Gwynne, Robin D, “The Distribution of Huguenot Refugees in England”, *Proceedings of the Huguenot Society of London*, XXI(1965-1970).
- _____, “James II in the Light of His Treatment of Huguenot Refugees in England, 1685-1686”,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92, No. 365(Oct. 1977).
- _____, “The number of Huguenot immigrants in England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9, No. 4(1983).
- _____, *Huguenot Heritage: The History and Contribution of the Huguenots in Britain*(second revised edition)(Eastbourne: Sussex Academic Press, 2001).
- Harris, Tim, *Politics under the Later Stuarts: Party conflict in a divided society 1660-1715*(London: Longman, 1993).
- Israel, Jonathan, “The Dutch role in the Glorious Revolution”, Jonathan I. Israel (ed.), *The Anglo-Dutch moment: Essays on the Glorious Revolution and its world impac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Lachenicht, Susanne, “Differing Perceptions of the Refuge?: Huguenots in Ireland and Great Britain and their Attitudes towards the Governments’ Religious Policy(1660-1710)”, Anne Dunan-Page (ed.),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Huguenots, 1660-1710*(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6).
- Lart, C. E., “The Huguenot Regiments”, *Proceedings of the Huguenot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vol. 9(1911).
- Mours, Samuel, “Essai d’évaluation de la population protestante réformée aux XVII^e et XVIII^e siècles”, *BSHPF*, vol. 104(1958).
- Murtah, Harman, “Schomberg, Ruvigny and the Huguenots in Ireland: William III’s Irish War, 1689-1691”, Matthew Glozier,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Huguenot Soldiering, 1685-1713*(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7).
- Nishikwa, Sugiko, “English Attitudes toward Continental Protestants with particular referece to Church Briefs c.1680-1740”, dissertation of Ph. D., University of London(1998).
- Onnekink, David, “Janisaries, and spahees and pretorian band: Perceptions of

- Huguenot Soldiers in Williamite England”, Matthew Glozier and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Huguenot Soldiering, 1685-1713*(Farnh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7)
- Orcibal, Jean, *Louis XIV et les Protestants*(Paris: Vrin, 1951).
- J. H. M. Salmon, *The French Religious Wars in English Political Thought* (Oxford: Clarendon Press, 1959).
- Smiles, Samuel, *The Huguenots: Their Settlements, Churches, & Industries in England and Ireland*(London: John Murray, 1867).
- Trim, D. J. B., “Huguenot Soldiering c.1560-1685: The Origins of a Tradition”, Matthew Glozier, David Onnekink (eds.), *War, Religion and Service: Huguenot Soldiering, 1685-1713*(Farnham: Ashgate Publishing Press, 2007).
- Weiss, M. Charles, *History of the French Protestant refugees from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to our own days*, 2 Vols., Henry William Herbert (trans.)(New York: Stringer and Townsend, 1854).

〈Résumé〉

L'exil de Huguenot et la Glorieuse Révolution à la fin du XVII^e siècle

Chung-Hyun KIM

Les réfugiés huguenots ont non seulement apporté des contributions économiques, mais ils ont aussi contribué à la scène politique, c'est-à-dire à la Glorieuse Révolution. L'histoire racontée par les réfugiés a prouvé la souffrance de la persécution et donc l'antipathie du peuple britannique envers la politique pro-catholique de James s'est intensifiée. Les réfugiés huguenots ont rejoint l'armée du prince William Orange et jouent un rôle important dans l'abdication de James et le renversement de Jacobite. En outre, les réfugiés huguenots ont contribué à l'émergence d'une alliance contre la France, par exemple, le roi Friedrich III a soutenu le débarquement de Guillaume en Angleterre pour contenir Louis XIV.

〈Abstract〉

The exile of Huguenot and the Glorious Revolution in the late 17th century

Chung-Hyun KIM

The Huguenots refugees not only made economic contributions, but also contributed to the political arena, that is the Glorious Revolution. The story told by refugees has proved suffering of persecution and so the British people's antipathy toward James's pro-Catholic policies has intensified. The Huguenot refugees joined Prince William Orange's army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James's abdication and the overthrow of Jacobites. In addition, the Huguenot refugees also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an alliance against France, for example, King Friedrich III supported William's landing in England to contain Louis XIV.